

/ 운전대 /



현대 '제네시스'



기아 '쏘울'



혼다 '어코드'



BMW 'M3'

자동차 운전석 초고속 진화

자동차 운전석이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 운전자가 단순히 차량의 방향을 조정하는 자리에서 벗어나 각종 첨단시스템을 장착한 종합 통제실로 변모하고 있다. 특히 운전대(스티어링 휠)의 경우 세련된 디자인과 함께 차량의 상태를 점검하고 다양한 부가기능을 작동할 수 있는 첨단 장비로 바뀌는 추세다. 변속기 역시 연비와 주행성능 등과 직결된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업체들의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운전대, 차체제어·자동감속 등 첨단 시스템 무장=현대차의 '제네시스'에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시스템(ACC)'과 '운전자 통합정보시스템(DIS)' 등의 첨단 장치가 운전대에 장착돼 있다.

'ACC'는 가속 페달을 밟지 않아도 차량이 일정한 속도로 주행할 수 있도록 하는 기존 현대차의 '크루즈 컨트롤 시스템'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했다.

'ACC'는 첨단 센서 및 레이더 기술을 접목해 앞 차량이 속도를 줄이면 뒤편 차량도 자동으로 감속하게 하는 장치다.

'DIS'는 차량정보, 멀티미디어, 공조장치 등의 모든 정보 표시 및 설정을 통합조작키로 조작할 수 있는 첨단 시스템이다. 변속기 바로 아래에 장착돼 조작이 간편하다는 게 현대차의 설명이다.

혼다는 운전대에 'VGR 스티어링 시스템'을 달아 주행 성능을 높였다. 이 시스템은 운전대의 움직임이 적은 고속주행에서는 정확한 핸들링을 제공하고, 주차 등 움직임이 클 때는 빠른 응답성을 보이도록 설계했다.

BMW 'M3'는 운전대에 설치한 'M드라이브로직' 버튼으로 서스펜션 강도와 차체제어 시스템 등을 컨트롤 할 수 있다.

볼보는 운전자 스타일에 따라 핸들링 감도를 3단계로 나눠 설정할 수 있도록 해 운전의 재미를 높였다.

국내 완성차업체의 '패밀리 룩(Family Look)' 추세도 운전대 진화에 한 몫을 하고 있다. 이들 업체는 운전대를 차량의 외부 디자인 못지않게 중요한 '마케팅 포인트'로 삼고 있다.

기아차는 최근 발표한 '포르테'와 '쏘울' 운전대를 기존 모델과 다르게 디자인했다. 알파벳 'U'자를 뒤집어 놓은 중심축에 'KIA'

마크가 있는 중앙부 원형을 강조해 직선과 곡선이 조화를 이루도록 했다.

기아차는 앞으로 나올 모델에도 이번 디자인을 반영해 '패밀리 룩'으로 만들 방침이다.

현대차는 운전대 안쪽에 있는 4개의 축을 손잡이 사이에 조화롭게 배치해 편안한 느낌을 주는 디자인을 채택했다.

이 디자인은 '쏘나타', '그랜저', '제네시스', '베라크루즈' 등 중형급 이상 차량에 적

용해 '패밀리 룩'을 형성하고 있다.

르노삼성차도 'SM'시리즈의 운전대에 넣는 엠블럼을 지난해 12월 선보인 'QM5'에도 적용해 일체감을 줬다.

◇국내·외 완성차업체 변속기 경쟁도 가열=자동차가 첨단화될수록 변속기의 중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변속기는 연비는 물론, 승차감이나 속도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부품이기 때문이다.

특히 완성차업체는 최근 변속기의 단수를 늘리기 위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자동 6·7단 변속기는 물론, 8단 변속기까지 나오는 추세다.

현재 국내 업체들은 4단이나 5단 변속기를 주로 사용하고 있다. 최근에는 GM대우가 국내 중형차 가운데 최초로 6단 변속기를 장착한 '토스카 프리미엄 6'을 출시했다. 이 모델은 시속 90~120km 정속 주행시 5

단 자동 변속기보다 연비가 15% 가량 높다. GM대우차는 향후 소형차와 준중형차에도 6단 변속기를 달 계획이다.

국산차 가운데 6단 자동변속기는 현대차의 SUV인 '베라크루즈'에 처음 적용됐다. 최근에는 기아차의 '모하비'와 르노삼성의 'QM5'도 6단 변속기를 장착했다.

현대차 '제네시스'는 후륜 6단을 장착했으며, 쌍용차의 '체어맨W'에는 국내 최초로 7단 변속기가 장착됐다.

수입차들은 5~6단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렉서스는 'LS460'에 세계 최초로 8단 기어를 달아 화제가 되기도 했다.

BMW는 전 차량에 6단 자동·수동겸용 '스텝트론닉 변속기'를 탑재했다. 또 '뉴7' 시리즈에 적용된 6단 자동변속기는 운전대 오른쪽에 장착돼 손가락만으로 기어 변속을 할

/ 변속기 /



재규어 'XF'



시동 전



시동 후



6단 변속 현대 '베라크루즈'



6단 변속 GM대우 '토스카'

첨단 시스템 장착 '종합 통제실'로

변속기 자동 6단에 8단까지 나와

수 있다.

재규어는 스포츠 세단인 'XF'에 업계 최초로 로터리 방식의 변속기인 '재규어 드라이브 셀렉터'를 적용했다. 원형으로 된 이 장치는 시동을 걸면 위로 솟아오르며, 레버를 좌우로 돌려 기어를 변속할 수 있다.

메르세데스-벤츠의 'S500', 'S350L', 'E 350', 'SL 500' 등에는 세계 최초의 7단 자동 변속기인 '7G-트론닉'이 장착돼 있다. 연료 소모량은 줄이며, 가속시에는 자동 5단 변속기보다 빠르게 가속할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폭스바겐은 TDI 엔진과 짝을 이루는 6단 'DSG변속기'를 장착했다. 'DSG'는 기어 변속을 단 0.04초 만에 끝낼 수 있으며 필요 시에는 기어를 건너뛰어서 저단으로 변속할 수 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좋은 보청기를 쓰십시오'
난청이 사라지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국제보청기

본점 (대구북구보청기에) 052-227-9940
총창점 (광남공병원) 052-227-9970

등대바다

부산광역시 동구 동대동 22-1
부산광역시 동구 동대동 22-1

부산광역시 동구 동대동 22-1

부산광역시 동구 동대동 22-1

실종된 애인을 찾습니다!
30,40,50부킹몰!

키움 ₩19,500

10월30일(목) 오픈

서울관광캐비닛

(대인동 롯데백화점 위/예약:062-226-9334)